

민주, 법사위 ‘상왕’ 기능 없앤다

“정기국회전 반드시 처리”

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5·18법안, 여순사건 특별법 등
‘법사위 제동’ 사라질 지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는 전제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한 ‘법사위 월권’ 방지 작업에 본격 속도를 낸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과 여순사건특별법 등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안의 발목을 잡던 ‘법사위의 제동’ 관행이 사라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여야 합의대로 정기국회 이전인 8월 25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의 ‘상왕’ 기능

을 없애는 방안을 담은 국회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달 국회법 처리를 위해 국회법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논의부터 빠르게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법사위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심사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면 장관이 아닌 차관이 참석하게 하는 방안과 함께 ‘선입·선출’ 심사 원칙을 통한 법안 병목 현상을 방지하는 장치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당원 계서판 등은 법사위원장을 넘긴 것에 대한 비판과 입법 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당 지도부와 대선 경선 주자들에게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이 쏟아졌다. 정청래 의원은 앞서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용민 최고위원도 “여러모로 힘에 부친다. 죄송한 마음을 개혁 의지와 추진력으로 승화시키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입법 동력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법사위원장의 법안 ‘발목잡기’인데, 이번 합의는 국회법 개정이 전제돼있고 의석수도 170석이 넘는 만큼 얼마든지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내린 불가피한 용단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소위 등을 거쳐 충분히 논의하고 보충한 법안인데 법사위에서 각 당의 입장차에 따라 지연하거나 반대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면서 “법사위 고유 기능을 강화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분향하는 송영길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오전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月珠)스님 분향소가 마련된 전북 김제시 금산사에서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본경선 토론배틀 개막…28일 첫 TV 격돌

후보간 격론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한동안 중단됐던 대선 경선주자 TV토론 일정을 재개한다. 최근 지지율이 다소 좁혀진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맞대결이 예상되며, 대반전을 노리는 후보 주자들의 활약도 관전포인트다. 반면, 최근 후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TV토론에서의 격론도 예상되고 있다. 25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연합뉴스 TV와 MBN이 공동주관하는 토론회가 본경선 첫 TV 격돌이다. 8월 4일에는 YTN이 중계하는 2차 토론회가 열린다. 추가적인 토론 일정은 현재 당

선관위 차원에서 조율 중이다. 예비경선 과정에서 집중견제를 받았던 이재명 지사는 이번 본경선 토론을 계기로 경선판의 흐름을 다시 유리하게 끌어오겠다는 각오다. 주요 쟁점의 공방을 시뮬레이션하는 리허설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지를 1위’에 걸맞은 침착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정책 전문가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은 토론 횟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예비경선 TV토론의 선전을 토대로 당초 압도적 우위였던 이 지사를 바짝 따라붙었다고 보고, 본경선

TV토론에서 지지율을 뒤집는 ‘골든크로스’를 이루겠다는 각오다. 나머지 4명의 주자도 TV토론에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친노·친문을 아우르는 정통성을 내세우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개혁이슈에서 선명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다시 정조준하고, 경남지사 출신의 김두관 의원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정치적 동지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유죄확정을 계기로 친문계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 되돌려 놓겠다”

원희룡 제주지사 대권도전 선언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57) 제주도지사가 25일 대권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원 지사는 이날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클래스가 다른 나라,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한 사람의 행복이 소중한 나라, 다음 세대가 더 잘 사는 나라, 사람과 자연 그리고 문명이 공존하는 나라”를 자신이 꿈꾸는 나라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원 지사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놓겠다. 무너뜨린 공정을 굳건히 세우겠다. 팍팍한 혁신의 길을 힘차게 열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겠다”며 법치 파괴, 소득주도

성장, 임대차 3법, 탈원전, 주52시간제를 열거한 뒤 “경제와 일자리, 집값, 에너지, 대한민국을 망친 그 모든 실패한 정책을 되돌려 놓겠다”고 공언했다. 또 “혈세가 아니라 ‘국가 찬스’로 기회를 뿌리겠다”며 “보육, 교육, 실업, 빈곤, 창업 그리고 청년 분야에서 담대한 국가 찬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원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실패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라고도 했다. 이어 “경험은 많지만 흠결은 없다”, “부패한 기득권이 아니다”, “독단적이거나 권력을 마구 휘두를 무서운 사람도 아니다”, “자신과 주변을 반듯하게 관리해 왔다”며 자신이 정권 교체에 적임자라고 자부했다. 원 지사는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1호 공약으로 ‘100조원 규모의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전남선관위, 내년 지방선거 관련 5명 검찰 고발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 배우자 등

내년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배우자 등 5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최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이들은 기초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의 배우자 B씨 등 4명과 모 지자체 공무원이다. 입후보예정자 A씨 등은 이사를 명목으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인쇄물이 포함된 음식물(떡)을 제공한 혐

의로 지난 21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음식물(떡)을 받은 주민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성 등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상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 언론사에 배포·보도되게 함으로써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공무원 C씨를 지난 22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발의 관광진흥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5일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보조 대상 사업에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집합제한·금지 엄중화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관광·여행업계 등은 집합제한·금지 엄중이 아니라

는 이유로 그동안 각종 피해지원에서 제외돼왔다. 이 의원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과 장기적인 국가 간 이동제한 조치로 인하여 관광사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군에 비해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금융 지원, 관광 활성화 지원, 방역 지원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나주 요양병원

「급 매 매」

토지면적 | 10,162㎡
건물면적 | 7,296㎡ (총 3동)

- ▶1동(2017년 준공) : 3,507㎡
- 지하 1층 ~ 지상 4층
- 베드 수 : 200베드
- ▶2동(2012년 준공) : 2,336㎡
- 지상 1층 ~ 지상 4층
- 현재 주간 요양 보호 30명
- 요양일 90명
- 추친용도 : 암 병동 또는 치매 병동
- ▶3동(2008년 준공) : 1,453㎡
- 지상 1층 ~ 지상 3층
- 현재 장례식장 운영 중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매매가격 | 118억원
상담문의 | 010-3605-8564 (임선화)
나주시 우정로 56
리치타워 A동 101호
전남공인중개사

은사님을 찾습니다

현재 75세 정도이고
전라남도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신
양송자 선생님을
찾습니다.

010-9989-7465
기 도 희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이해자(731010-XXXXXX)
· 최후주조: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임성4길 5-15 (임성리)
피상속인 망 이해자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1년 7월 3397호로 신청하여 2021년 7월 6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주채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7월 26일
· 상속인: 1. 이해관(640106-XXXXXX) 부산 남구 수영로 135, 119동 802호 (대안동, 대연롯데캐슬래인드)
2. 이윤도(710702-XXXXXX) 부산 사상구 광장로105번길 45 (예법동)
3. 이미경(660813-XXXXXX) 부산 사상구 대동로 84, 202동 1703호 (한양동, 무재아파트)
4. 이윤희(680908-XXXXXX) 김해시 분실로 4, 107동 504호 (외동, 협성엘리시안)
· 신고기간: 2021. 7. 26 ~ 2021. 10. 4.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1. 이해관의 주소

光州日報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양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봉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동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국 959-1920
- 천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